

무역경영의 정체성과 성서적 기초

심종석¹⁾ 대구대 교수

<요약>

본 연구는 무역경영의 정의와 정체성에 관한 본류를 되짚어 이에 상당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취지를 기저에 두고 특별히 성서적 시각에서 널리 수용 가능한 무역경영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이념적정체적 기초를 추론하여 이를 명료히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적 시각에서 무역은 대개 부정적인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곧 무역에서 비롯된 부의 창출에 의지하여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퇴폐적 향락문화에 빠졌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회적으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날로 퇴폐적·향락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현시대를 주시할 때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순기능적 역할과 책임도 더불어 가중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무역경영은 이국 간 상인 간 상거래를 근간에 두고 있는바 시대 상황은 가일층 당해 기업의 도덕적·윤리적 무한책임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영의 경우 성서에서는 무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각에서 악한 계획과 책략,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대항, 사악하고 부정함, 거짓 또는 사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문화를 견인하고 양산하여야 한다는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역경영은 국경을 넘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가운데 인류문화의 순기능적 창달과 국부의 창출을 본원적 사명에 두고 있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국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고 보아 앞서 도출한 무역과 경영의 성서적 시각을 참조로 새로운 지평을 개진해 나갈 때라고 본다.

주제어 : 무역, 경영, 정체성, 무역경영, 성서적 시각, 가치평가

1)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 cyrus@daegu.ac.kr

I. 서론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외국 원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과 번영을 통한 탈 후진국의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경제체제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그 핵심은 경제근대화를 목표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근간으로 국가 경제의 본원적 체질을 자립경제로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심종석, 2020).

그러나 이러한 대응체계는 국가의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했고 더욱이 경제근대화를 위한 국민의 의식 수준 또한 극히 부진했던 현실적 장애에 부딪혀 처음 계획과 같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게다가 당시 국가적 대계를 견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선농업·후공업의 근대화전략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적인 독특한 근대화 모형으로서 농·공병진이라는 힘겨운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운명을 맡겼는데 이는 실로 모험 자체이기엔 충분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면 1964년 불과 1억 불에 머물렀던 수출실적이 지난 2007년에는 3,700억 불을 초과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 2011년에는 무역 총액 1조 불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상대적 평가로서 우리 수출성과는 1964년 세계 90위권에서 2007년 기준 세계 9위로 발돋움하였는데 그 위상을 절대적으로 환산하면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수출실적을 상회하는 성과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35개국 수출 규모에 상응하는 실적에 달한다.²⁾ 이처럼 불과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약 3,700배의 성장과 연평균 증가율 21%에 달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어느 국가의 인적자원보다도 뛰어난 우리나라 무역 인력의 역량과 그 열정적 헌신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심종석, 2020).

이 같은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부흥을 위한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에 편제하였던 무역학 관련 학과가 줄곧 그 폭과 범위를 다변화하는 중에 수출주도를 위한 산업 부양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이 되었던 섬유·화학·건축·토목·기계·조선·전자·전기·컴퓨터 등 유관학과와 통섭적 차원에서 시의 적절히 결합해 고급 인적자원을 지속해서 양성·배출할 수 있었던 경제사적 실체에 근거한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으로부터 비롯된 국가적 총력대응 상황에 직면하여 그간 무역학의 본류는 그 정체성이 갈수록 퇴색되어 급기야 전방위적 위기의 파고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달리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무역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마땅히 그간의 역량과 열정을 추슬러 재결집하여야 한다는 당위로 역설할

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 본고에서 인용하는 모든 웹사 이트는 본고 제출 시점 현재까지(2022.09.20.) 웹상에 현시(display)되어 있음을 참고한다.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오늘날 무역학은 나날이 그 입지와 지위가 좁아지거나 미약한 수준으로 전락해 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그간 시대 상황이나 요구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약했고 또한 그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는 중에 인접한 유관학문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등한시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이 핵심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판단과 직관이 설득력이 있다면 경영학 분야에서 장래 무역입국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무역경영(trade management)의 정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일 수 있다(라공우, 2011; 심종석, 2009; 홍성규,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무역경영의 정의와 가치에 관한 본류를 되짚어 이에 상당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취지를 기저에 두고 특별히 성서적 시각에서 널리 수용 가능한 무역경영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이념적·정체적 기초를 추론하여 이를 결론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무역경영의 실체와 실질을 바로 새겨 최근 날로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무역 또는 무역학의 본류를 되짚어 순기능적인 무역경영의 바람직한 노정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II. 무역경영의 정의와 구현수준

2.1 무역의 정의

무역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고전인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기록된 ‘이물상무역’(以物相貿易)이라는 문구와 증선지의 고금역대십팔사략(古今歷代十八史略)에 기록된 ‘무역의복회전수주’(貿易衣服回傳數周)라는 문구에서 유래되었다(이용근, 2011; 심종석, 2020).³⁾

이들 문구는 중국 월(越)나라의 명재상이자 재력가였던 범려(范蠡)의 일대기를 서술한 기록 중 일부로서 그 내용은 당시 세간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범려가 은퇴 후 말년에 중국 일대를 유랑하면서 타민족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빈민의 구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뼈대에 두고 있다. 여기서 무역은 공히 매매 또는 교환을 뜻한다.

한편 영어의 경우 무역은 트레이드(trade)로 표기되는데 어원은 발걸음(tread) 또는 밟아 다져져서 생긴 행로(track)에 두고 있다. 이에 트레이드는 ‘어떠한 길이나 행로를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라는 함축된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한편 왜국어로서 무역(ぼうえき)은 국가 간 물품의 거래, 수출과 수입의 총칭, 국제적으로 재화의 교환과 관련된 상행위 등의 넓고도 다양한 뜻을 포함한다. 이 경우 무역은 교역과 동일시된다. 무역은 이처럼 다양한 언어체계에서 그 본연의 특성에 맞게 각기 정의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무역학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역에 관한 각양의 정의를 참조하면 다음 <표 1>과

3) 「https://www.chazidian.com/r_ci_f427d663a1cf6133fd759d6b6a280619/」.

같다.

<표 1> '무역'에 관한 정의

내 용	출 처
○ 나라와 나라를 달리하는 사인 간의 물품과 대금의 교환	양영환 외(2013)
○ 국경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 활동	윤광운(2012)
○ 서로 다른 나라 간에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또는 매매	이용근(2011)
○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경윤범(2002) 전순환(2019)
○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를 전제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	송채현 외(2009)
○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련의 활동	정용균(2017)
○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	구종순(2001)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이국 간 상인 간 상거래	심종석 (2020)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무역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품을 매매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간략히 함축하면 국제물품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로 일괄할 수 있다. 이에 담긴 무역학적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는 국가 간(inter-national)을 뜻한다. 이는 무역의 공간적 범위로서 해석상 이국(二國, two-states)이 아닌 이국(異國, different-states)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자로 새기면 제3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개입되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나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등은 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품’은 넓은 의미에서 유형 또는 무형재화(visible or invisible goods)와 서비스 및 노무 등을 망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이 중에서 유형재화만을 그 대상에 두고 있다. 참고로 법학에서는 물품이 아닌 ‘물건’으로 의제하여 ‘유체물 및 전기 그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seller)]이 특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buyer)]은 이에 대응하는 대가[급부]로서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요컨대 국제물품매매를 본질에 둔 무역은 위 내용을 참고로 간략히 정리하면 ‘국가 간 물품과 그 대가로서 대금을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범위와 주체와 내용은 ‘이국 간 · 상인 간 · 상거래’(inter-states · inter-merchant · commerce)로 특정할 수 있다.

2.2 경영의 정의

경영(management, administration)은 주장하는 사람만큼이나 정의가 다종다양하다.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사업 그 밖의 조직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행하는 일’ 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통상 ‘특정조직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다(심종석, 2022). 한편 국내의 경우 경영학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에 관한 각양의 정의를 참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심종석, 2020).

<표 2> ‘경영에 관한 국내외 정의

구분	내 용	출 처 (가나다)
국 내	○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업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 실행· 통제하는 과정	강신성의(2014)
	○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이 사회생활에서 요구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고 유통시키는 활동	김병윤 외(2017)
	○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화· 조직화· 지휘화· 통제화 등의 여러 기능을 통하여 조직의 인적·물적 및 재무적인 제반 자원을 활용하는 경제적 과정	김성수(2016)
	○ 인적· 유형· 무형자원 등을 투입해 제품·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김태웅 외(2014)
	○ 특화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	방희봉 외(2010)
	○ 조직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조직 내 작업활동을 조정하는 활동	오종석 외(2011)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내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동	이필상 외(2010)
국 외	이윤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어진 기업의 자원을 적절히 투자하는 활동	Alexander(2013)
	조직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명령하고 통제하는 과정	Cole(2004)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	Dale(1965)
	조직의 과업· 규율· 구성원의 총합	Drucker(1995)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과정	Meredith(1998)
	조직 구성원을 통해 조직의 특정과업이나 목표를 수행하거나 성취하는 활동	Sheldrake(2003)
	기업 보유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의사결정과정	Stevenson(2007)
	조직구성원의 노력을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여 모든 조직의 자원들을 명시된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	Stoner(1982)
	경영자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일들을 계획· 운영· 채용· 지휘· 통제하는 활동	Wehrich(2005)

일반적으로 경영은 일상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그 범위를 ‘단위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 유도하고 지휘하는 일련의 활동’에 두고 있다. 이를테면 기업(corporation, company)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뜻을 내재한다. 여기서 기업도 경영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뜻을 지니는데 대개 좁은 범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단위’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요컨대 경영은 ‘특정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수단과 방법을 도출하고 이것을 실행하여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지속적인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Stevenson & Cao, 2007).

2.3 무역경영의 의의와 구현수준

2.3.1 무역경영의 의의

오늘날 무역환경은 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순기능적이고도 전방위적인 변화를 모색케 하고 있다. 오늘날 수요와 공급은 국내·외 시장 여하를 불문하고 전략적 합종연횡을 통해 다국적·다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테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료와 자재를 조달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도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전 세계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차체에 있다.

기업도 국적을 초월하여 그들이 추구하는바 이해를 모색·획득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전략적 기업경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Camilleri, 2021).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경제 현실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상대적으로 품질·기능 등이 우수한 물품이라면 국산과 외산을 불문하고 소비하거나 그 효용 가치를 향유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품과 외산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비심리에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지난날 민족주의는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그 자취를 일절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복잡다단한 국제경제환경으로부터 야기된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다변화는 학문의 경계와 그 체계마저도 허물어 이른바 융·복합학문이라는 큰 틀에서 저마다의 생존전략을 추구하도록 끝단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조성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요컨대 현재 무역학 분야는 융·복합적 시각에서 경영학·경제학·심리학·지역학·국제학·법학·언어학 등의 분야와 시의성 있게 이른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분야별 특화를 모색하고 있는 차체에 있다. 본래 무역 분야는 무역계약·무역운송·무역보험·무역결제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재가 연동된 분야이고 경영의 경우 경영의 수평적 기능관리 분야인 생산관리·마케팅·재무관리·인사관리·품질관리 그리고 전사적 기능관리 분야로서 윤리경영·지식경영·기술경영·경영혁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별분야와 관련한 이론과 실재 분야가 기축을 이루고 있다(심종석, 2022). 살피기에 무역과 경영분야는 당해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통상학·국제지역학 등의 전공 분야와 융합하는 중에 그 폭과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경향을 엿보이고 있다.

재론의 여지 없이 현대는 초경쟁·초격차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경쟁력 있는 신기술·시대를 앞서가는 신제품·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한 원스톱 서비스·다양한 이해를 집적한 고밀도 부가가치 등을 기반에 둔 기업은 종전과 같이 막대한 자본 투입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언제 어느 때고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단시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3.2 무역경영의 구현수준

오늘날 경영학 분야에 널리 제지리를 잡아가고 있는 무역경영 분야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무역의 전 범위를 순기능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지위를 정립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계에서 생산관리·마케팅·재무관리·품질관리·경영정보 등을 합체한 수평적 기능관리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종전 무역학 분야는 이른바 무역실무를 기축으로 실무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개되었는데 당해 분야는 무역의 고도화와 다각화 그리고 인접 학문과의 통섭적 수요와 요구에 따른 무역과 앞서본 경영의 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파생한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역경영 분야는 현재까지 그 결합 정도가 느슨하여 특별한 정의와 개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그간 무역실무의 제 분야였던 무역계약·무역운송·무역보험·무역결제 분야가 경영의 전사적 기능관리 분야와 융합하여 융·복합 학문 및 실제로 그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무역경영 구현수준은 학제 간 전통적 무역실무 연구분야인 무역계약·무역운송·무역보험·무역결제 분야에 경영학 분야의 실제로서 생산관리·마케팅·재무관리·인사관리·경영정보 등 전사적 기능관리 부문이 결합된 무역에 관한 복합적 경영관리 분야를 범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도해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무역경영'의 구현수준

구분	분야	특 성
무역	무역계약	이국 간 상인 간 상거래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절차상 제약이 따르는 유상·쌍무·낙성을 본질로 하는 분야
	무역운송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국가 간 물품의 운송에 관한 분야
	무역보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에 부수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무역결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대금결제에 관한 각양의 방법과 절차
경영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일반적으로 생산에 관한 활동을 관리하는 분야로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마케팅관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종합적·체계적·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계획·조직·실시 및 통제의 각 단계를 관리하는 것
	재무관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조직과 직능에 투입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재무기능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프로세스
	인사관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획득·개발에 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장래 인적 자원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전략 실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경영정보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용한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활용하여 경영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

III. 무역경영에 관한 성서의 기록

3.1 서설

개역한글 성서를 기준으로 ‘무역’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6회 ‘경영’은 구약에서 27회 신약에서 5회 총 32회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무역의 유사개념인 ‘통상’이라는 단어도 6회나 그 모습을 엿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통상은 유독 에스겔서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 원어와 번역된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3.2 무역에 관한 성서의 원어적 의미

무역은 구약성서에서만 그 모습을 엿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무역에 해당하는 히브리 용어는 <표 3>에서와 같이 사하르(*Sachar*)·라칼(*Rakal*)·마아라브(*Maarab*)·나탄(*Nathan*)·레클라(*Rekullah*) 등 총 5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용어는 무역과 상업 그리고 무역 활동에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레클라(*Rekullah*)는 다른 용어와 다르게 ‘주다’, ‘세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표 4> ‘무역’에 관한 성서의 기록

구분	원어	의미 (개역한글)	의미[KJV, (NIV)]	출처
구약	사하르(<i>Sachar</i>)	두루 다니다. 무역 이익. 무역에 종사하다.	Trade(Traffick), Profit, Earnings (Merchandise)	창 42:34, 잠 31:18, 사 23:18, 23:8, 23:18, 45:14, 47:15, 겔 27:16, 18, 21
	라칼(<i>Rakal</i>)	(무역을 목적으로) 이곳저곳 돌아 다니다.	Trade (Traffick) Merchant (Merchant)	왕상 10:15, 겔 27:15, 17, 20, 22, 24
	마아라브(<i>Maarab</i>)	상품. 교역물	Trade (Merchandise)	겔 27:9, 27, 33, 34
	나탄(<i>Nathan</i>)	주다(give). 세우다(set).	Exchanged (Trade)	겔 27:12, 13, 14, 19
	레클라(<i>Rekullah</i>)	상품. 무역. 상업	Trade (Merchandise)	겔 26:12, 28:16, 18

3.2.1 사하르

사하르(*Sachar*)는 ‘돌아다니다’(go around), ‘순회하다’(go about), ‘두루 여행하다’(travel about in)는 의미 외에 ‘무역에 종사하다’를 뜻도 있다. 이 단어가 포함된 가사는 통상 부정적 의미와 함께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곧 타락한 영적 상태의 결말이 심판일 수밖에 없는 외적 표시로서 ‘두루 다니다’, ‘무역에 종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렘 14:18).

4)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 관한 상세는 「https://biblehub.com/englishmans_hebrew.htm」.

3.2.2 라칼

라칼(*Rakal*)은 장사를 위해 ‘이곳저곳 이동하다’, ‘돌아다니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자체로 무역상을 가리키는데 성서에서는 이를 ‘객상’으로 번역하고 있다(왕상 10:15, 대하 9:14).

당해 성서 본문에서는 블레셋 5대 도시의 하나인 두로(Tyre)가 외국과의 해상 무역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두로가 교역했던 나라와 물품의 열거를 마감하고 무역 왕국으로서의 화려함을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후일 두로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

3.2.3 마아라브

마아라브(*Maarab*)는 ‘상품’, ‘교역품’을 의미한다. 출처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 두로가 해상 무역으로 자신과 무역하던 나라를 번영케 했음을 뜻하고 있다. 나아가 두로가 이전에 믿고 의지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재물과 선원 및 병사가 모두 수장된 것을 그 배경에 두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두로가 하나님 심판의 날에 온전히 패망하여 멸절될 것임을 암시한다. 요컨대 마아라브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가 두로의 멸망으로 이익이 끊기고 그 멸망이 이내 자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함축하고 있다.

3.2.4 나탄

나탄(*Nathan*)은 ‘주다’, ‘세우다’는 뜻이다. 출처에서 두로인이 해상 무역을 위해 드나들었던 항구를 지칭한다. 두로는 북으로 시돈(Sidon)과 남으로 파라오(pharaoh)의 대리인으로서 애굽(Egypt)과 무역하고 있었다(심종석, 2015). 당시 두로는 동·서양 여러 나라와 무역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이를 두고 두로를 ‘열국의 시장’(marketplace of the nations)으로 묘사했다(사 23:3). 두로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부로 자신을 화려하고 영화롭게 단장하기도 했는데(겔 4-11) 이는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엿보인 의도로써 이러한 행위는 장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겔 28:11-19).

3.2.5 레클라

레클라(*Rekullah*)는 ‘상품’, ‘무역’, ‘상업’을 지칭하는데 주로 두로의 교만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겔 26:12, 28:16, 18). 당시 두로의 왕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처럼 숭배받기를 원했는데 이에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지혜나 신도 사용하려거나 의지하지 않았다. 출처의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로써 두로를 멸망시키되 모든 족속에게 수치가 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3.3 무역에 관한 성서의 역사적 의미

3.3.1 무역과 도시국가와의 관계

한편 성서에 비추어 구약시대 무역은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가나안 지중해 연안의 시돈(Sidon), 두로(Tyre), 아스돗(Ashdod), 아스글론(Ashkelon), 에그론(Ekron) 등은 블레셋 예하 대표적 도시국가(city-states)이자 무역도시였는데 이들 도시는 멸망 시까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Glassman, 2017).

가나안 5대 도시로 명명되고 있는 이들 도시국가는 지중해 연변의 페니키아(Phoenicians) 지경이었던 도시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창출한 막대한 부로 선진 문명을 구가하였음은 물론 그 결과 이스라엘에 앞선 철기문화를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삼상 13:19-22) 퇴폐적 향락문화와 문란한 성적 제례의식이 주를 이루었던 다신교의 종교적 행태에 빠져 있었다(삿2:13, 10:6, 16:23; 삼상 5:2-7, 12:10; 왕상 16:31, 18:18 등)⁵⁾

〈표 5〉 가나안의 5대 무역도시에 대한 구약성서의 기록

무역도시	내용 (출 처)	유사기록
시돈 (Sidon)	○ “주 여호와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겔 28:22)	렘 47:4, 삿 10:6, 왕상 11:5, 33, 겔 28:21, 32:30, 사 23:4, 12 등
두로 (Tyre)	○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흥용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겔 26:3-4.)	겔 26:7, 15, 27:2 을 3:4, 사 23:1 암 1:10
아스돗 (Ashdod) 아스글론 (Ashkelon)	○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흠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 1:8)	렘 25:20 삼상 5:6, 슝 9:5, 6
에그론 (Ekron)	○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뽕히우리라.” (슝 2:4)	렘 47:5, 7, 암 1:8 슝 2:4, 7, 슝 9:5

3.3.2 무역과 도시국가 주신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끝까지 위협한 블레셋의 대표적인 주신은 바알(Ba'al), 아세라(Asherah), 아스다롯(Ashtaroth), 다곤(Dagon), 바알세불(Baal-Zebub) 등이었다. 이들은 무역으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부를 앞세워 유일신 선민사상을 기저에 두었던 이스라엘과 때마다

5) 이하 인용하는 성서는 일괄 ‘개역한글판’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논제에 비추어 그밖의 성서번역본에 비해 ‘무역’과 ‘경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번역]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문의 경우에는 ‘KJV’을 과 ‘NIV’를 병용한다.

대립하였다. 요컨대 무역은 이러한 대립환경이 구축된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성서에서는 무역을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가나안 주신의 면면과 구약성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하 <표 6>과 같다.

<표 6> 가나안의 5대 무역도시의 주신에 관한 구약성서의 기록

종류	내 용 (출 처)	유사기록
바알 (Ba'al)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 하고” (왕상 16:31)	렘 2:8, 23, 7:9, 9:14, 11:13, 17호 2:17, 11:2 등
아스다롯 (Ashtaroth)	○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삿 10:6)	삿 2:13, 삼상 12:10, 31:10, 삼상 7:3, 4 등
다곤 (Dagon)	○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삼상 5:7)	삼상 5:2-5 대상 10:10 등
바알세불 (Baal-Zebub)	○ “고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나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하 1:16)	왕하 1:2-3, 6 등
아세라 (Asherah)	○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 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미 5:14)	삿 6:25-26, 28, 30 왕상 14:15 등

구약성서에서는 가나안 5대 도시의 무역을 불법거래(illegal transaction) 또는 밀거래(trafficking)를 의미하는 ‘Traffick’(원어로 *Sachar, Rakal*)이라고 일컬어 경계하였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민족혼에 두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동인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한 중심에 가나안 5대 도시의 주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은 이들 가나안 5대 도시의 산물로서 지극히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이들 도시의 멸망과 징벌을 예언하기도 했다.

3.4 통상의 경우

3.4.1 통상에 관한 성서의 원어적 의미

통상은 ‘두루 다니다’, ‘무역으로 얻은 이익’, ‘무역에 종사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앞선 무역으로 번역된 사하르(*Sachar*), 라칼(*Rakal*) 등과 의미가 대체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성경에서 이를 굳이 ‘통상’으로 번역하고 있는 취지는 그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통상으로 번역한 구약성서의 기록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7> '통상'에 관한 성서의 기록

원어	의미 (개역한글)	의미[NIV, (KJV)]	출처
사하르(<i>Sachar</i>)	두루 다니다. 무역으로 얻은 이익 무역에 종사하다.	※ 무역에 관한 성서의 기록과 동일	겔 27:12, 16, 18
라칼(<i>Raka</i>)	(무역을 목적으로) 돌아 다니다.		겔 27:3, 15
마르콜레트(<i>Markoleth</i>)	무역상업 장소나 시장	Marketplace, Trade (Merchant, Merchandise)	겔 27:24

3.4.2 통상과 무역과의 관계

본래 무역학의 학문체계에 있어 '통상'은 1990년대 중반 WTO 출범과 정부의 국제통상인력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에 따라 기존 무역학도가 통상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로 재편되면서부터이다. 통상은 연구범위 및 방법·접근방식 등이 무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곧 통상의 어의에 비추어 "상인 간 매매를 장애 없이 서로 통하게 한다"는 의미와 같이 그 의미가 '국가 간 통상정책조정'(coordination of trade policy between countries)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그 대상과 주체 또한 국가·정부기관·공공단체 등에 국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공익보호·각국 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국가적 차원의 지원·국제협력과 공조 등을 범위에 둘 수 있다(심종석, 2009).

이에 대하여 혹자는 통상의 주체를 국가 등 공공 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과 국제통상학은 상거래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물품과 화폐의 흐름에 대하여 국가 간 또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취하는 각종 통상활동·통상정책 과정 및 통상제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통상환경 등을 교육 또는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하고 있다.

요컨대 통상은 국가 간 통상정책의 조정 및 화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무역과 공통영역에 대한 관계성은 차치하더라도 무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착 및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가 간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활동이라 보아 이에 국제통상학은 공적·공익적·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상의 시각을 종합할 때 성서에서 통상이라는 번역과 어의는 무역과 일원화 또는 통합적 시각에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3.5 경영에 관한 성서적 기초

한편 후자의 경우로서 경영에 관한 성서 원어의 본질적 의미는 앞선 선행연구를 참조로 여기서는 당해 연구결과를 구체화하여 이하 무역경영에 관한 성서적 기초를 통해 그 본원적 성서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앞선 연구결과를 원용할 때 경영의 성서적 기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권능과 약속을 상기하는 중에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정리되고 있다(심종석 2020).

<표 8> '경영'에 관한 성서의 기록

구분	원어	의미 (개역한글)	의미[NIV, (KJV)]	출처	
구약	부정적 의미	자밍(<i>Zamam</i>)	속고하다. 계획하다.	Plan (Imagined)	창 11:6, 렘 51:12
		네게드(<i>Negeed</i>)	~의 앞에. 맞은편에	Bent, (Before)	출 10:10
		짐마(<i>Zimmaḥ</i>)	(목적달성의) 결심	Plan (Purpose)	욘 17:11
		하가(<i>Hagah</i>)	묵상(명상)하다.	Plot (Imagine)	시 2:1
	긍정적 의미	아마르(<i>Amar</i>)	선언하다. 약속하다.	Intend to	대하 28:13
		에차(<i>Etsah</i>)	충고. 조언. 의논	Plan (Purpose)	라 4:5, 시 13:2, 14:6, 사 14:26
		메짐마(<i>Mezimmaḥ</i>)	계획. 의도. 분별	Purpose (Thought)	욘 42:2
		마하사바 (<i>Machashabah</i>)	생각. 계획. 고안	Plans(Counsel) (Thought)	잠 15:22, 16:3, 20:18, 21:5
		마아라크(<i>Mearak</i>)	준비, 작정	Plan (Preparation)	잠 16:1
		야아츠(<i>Yaats</i>)	충고(조언, 권면)하다.	Purpose (Purpose)	사 14:24, 27
		야차르(<i>Yatsar</i>)	형성(고안)하다. 만들다.	Plan (Fashioned, Purpose)	사 22:11, 46:11
		바카쉬(<i>Baqash</i>)	찾다. 요구하다. 묻다.	Seek (Seek)	렘 45:5
		하샤브(<i>Chashab</i>)	판단을 내리다.	Purpose (Purpose)	렘 49:20, 렘 50:45
		파알(<i>Paal</i>)	하다. 행하다. 만들다.	Plan (Purpose)	미 2:1
신약	멜레타오(<i>Meletao</i>)	보살피다. 속고하다.	Plot (Imagine)	행 4:25	
	티데미(<i>Tithe-mi</i>)	어떤 계획에 두다.	Decide (Purpose)	행 19:21	
	불로마이(<i>Bouloma</i>)	의도하다. 노력하다.	Plan (Purpose)	고후 1:16, 17	
	불류오(<i>Bouleuo</i>)	속고하다. 의논하다.		고후 1:17	
	테크니테스(<i>Technites</i>)	장인. 기술자	Builder (Maker)	히 11:10	

IV. 무역경영에 관한 성서의 시각

4.1 서설

무역에 관한 성서의 기초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본 가나안의 5대 도시국가가 무역으로부터 창출한 부를 기반으로 퇴폐적 향락문화와 그들의 주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배경을 두고 있다.

경영의 경우도 긍정적 시각에 반하여 부정적 시각에서의 의미를 표창하고 있기도 한데 서적 시각에서 이하 무역과 궤를 같이하여 경영의 부정적 시각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성서에서 시사하는바 오늘날 무역경영의 바람직한 기초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4.2 무역의 경우

4.2.1 재물의 경계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무역도시 두로를 기생[prostitute, (harlot)]에 비유했다. 이는 물건을 사고파는 두로의 면모가 노래와 몸을 파는 기생과 비슷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사 23:15-18). 당해 기록을 바로 새기면 “기생의 소득과 보수가 여호와께 거룩히 여김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두로의 회복이 장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원은성, 1995). 여기서 열방인 두로와 음란한 행위를 해서 번 돈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율법에서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라는 율법 때문이다(신 23:18).

요컨대 성서 해석상 통설은 두로에게 적용된 기생이라는 말은 무역에 종사하는 두로를 비유적·은유적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상행위로서 무역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악하지는 않으나 성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라는 기사를 통해 재물의 신앙적 역기능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향락과 악한 행사

‘객상’(trader, trafficker)은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군소 상인’을 의미한다(왕상 10:15). 원어로는 “장사 등을 하면서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라칼(*Rakal*)이다. 객상은 그 자체로 외국과의 무역상 곧 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런데 성서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태도는 열방의 퇴폐적·향락적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전한 매개이자 주체로 보아(왕하 23:13) 이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또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삿 2:13, 삼상 7:3-4, 12:10, 31:10).

요컨대 객상을 향한 경계의 대상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라는 기사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시 33:15).

4.2.3 교만과 거만함

무역도시 두로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패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교만(pride, arrogant)에 있었다. 두로는 경제나 무역 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번성한 왕국이었는데(겔 27), 하나님께

서는 본 장을 통해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신 것은 과거 두로의 영화를 뒤로하고 이제는 패망케 되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그 처지가 당시와 대조적으로 역전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두로는 앞서 본대로 열국의 시장으로 묘사되었는데(사 23:3) 이는 두로의 부와 영화가 창대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두로는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고까지 칭하고(겔 27:3) 게다가 두로 왕은 스스로 신으로까지 자칭했다(겔 28:2).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무역업을 통한 경제적 부에 의지하여 자신들을 화려하고 영화롭게 단장한 데서 비롯된 말로 보인다(겔 27:4-11). 그렇지만 이 말은 본질적으로 두로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낸 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28:11-19).

요컨대 무역의 순기능에 관해서 성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다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라는 기사를 참고할 때 무역의 결과로서 부와 명예로부터 파생하는 교만과 거만은 지극히 경계하여야 할 대상임을 엿볼 수 있다.

4.3 경영의 경우

4.3.1 악한 계획과 책략

경영으로 번역된 단어의 하나로 ‘자맘’(zaman)은 주로 악한 나라에 대한 심판에서 계획하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과 의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악한 자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창 11:6). 이를테면 사람을 언급하거나 지칭할 때는 대체로 ‘악한 계획과 책략’을 함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성서에서는 ‘피하다’(신 19:19, 시 31:13, 37:12), ‘도모 또는 간품하다’(잠 30:32, 31:16), ‘작정하다’(렘 4:28)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간경영의 허사로 폄하하여 배척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악한 계획과 책략이라는 의미를 저변에 두고 있다(심종석, 2020).

4.3.2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대항

경영은 원어로 ‘네게드’(neged)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출 10:10) 이는 눈에 띄는 혹은 보이는 곳에서 ‘반대하여 맞서서 마주하고’라는 뜻을 지닌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대항적 언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여기서 경영은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는 대항적 의미를 담고 있다.

4.3.3 사악하고 부정함

‘짐마’(zimmah)는 ‘방책·의도·사악함·부정함 그 밖에 음탕함’이라는 뜻을 지닌다(욥 17:11). 이 단어는 어의는 다양한데 욥기의 기사를 제외하고 항상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악한 방책이나 의도’(잠 24:9), ‘행위에 있어서 사악함’(호 6:4, 잠 1:27) 등을

포함해 ‘부정 또는 음란’의 의미로 곧잘 사용되고 있다(레 18:17, 20:14, 사 20:6). 또 은유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적시하고도 있다(겔 16:27).

4.3.4 거짓 또는 사기

‘하가’(hagah)는 경영과 관련 ‘악한 자가 마음에 품거나 악한 나라가 꾀하는 간계’의 의미로 곧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로 표현된다(시 2:1). 또 이 단어는 악한 자의 말은 마음에서 (시 59:13) 그리고 혀에서 나온다고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사, 59:3).

V. 요약 및 결론

현재 무역학 분야에 있어 고전적 이론 분야는 거의 형해화된 상태에서 실무분야도 경영학 분야의 틀 속에서 통합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사실 무역학 분야는 1970년대 근대화의 기치 아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무역 전문인력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양산하기 위해 경제학·경영학·상학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창설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지닌 무역학은 고도화되어 가는 국제경제 상황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약했고 또한 그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는 중에 인접한 유관학문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등한시한 결과 현재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면한 상황에서 장래 무역입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무역경영의 정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무역경영의 정의와 가치에 관한 본류를 되짚어 이에 상당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취지를 기저에 두고 특별히 성서적 시각에서 널리 수용 가능한 무역경영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이념적·정체적 기초를 추론하여 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적 시각에서 무역은 대개 부정적인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곧 무역에서 비롯된 부의 창출에 의지하여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퇴폐적 향락 문화에 빠졌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회적으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날로 퇴폐적·향락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현시대를 주시할 때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순기능적 역할과 책임도 더불어 가중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무역경영은 이국 간 상인 간 상거래를 근간에 두고 있는바 시대 상황은 가일층 당해 기업의 도덕적·윤리적 무한책임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영의 경우 성서에서는 무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각에서 악한 계획과 책략,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대항, 사악하고 부정함, 거짓 또는 사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문화를 견인하고 양산하여야 한다는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역경영은 국경을 넘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가운데 인류문화의 순기능적 창달과 국부의 창출을 본원적 사명에 두고 있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국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고 보아 앞서 도출한 무역과 경영의 성서적 시각을 참조로 새로운 지평을 개진해 나갈 때라고 본다.